

무주군 안성면사무소를 짓기로 해서
주민들을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열에 아홉은

짓지말아. 왜 돈을 들여가면서 짓느냐?

그래도 짓는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줄거야?

해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이나 지어줘

목욕 안하십니까?

집에서 쫄쫄 나오는 샤워기로는 목욕을 못해
일 년에 몇 번 봉고차 빌려서 도시로 나갔지.

그렇게 지어진
공중목욕탕을 품은 안성면사무소

건축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고
공간을 조직해 주는 직업입니다.
그게 건축가입니다.
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 영화 「말하는 건축가」 中

“건축가로서 내가 한 일은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요구를 공간으로 번역한 것이다.”
故 정기용

협업을 통해 우리동네 공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을건축가는 주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행정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검토하고, 건축·문화·인문·역사적 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지역의 이해와 동의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마을의 공간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마을건축가

시민의 삶과 생활을 짓다





마을건축가는 마을에 애착을 가진, 공간과 건축에 대한 전문가로서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과 함께 마을단위의 공간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건축가입니다.

마을건축가의 주요 업무는,

- 지금**은, 키움센터, 마을활력소, 불편한 시설개선 등 마을 공간을 주민과 함께 만듭니다.
- 앞**으로, 장소의 기억과 특성을 살려 우리동네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갑니다.
- 언제**든, 주민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마을공동체와 소통합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향후 3년 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우리 동네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일상의 시설과 장소를 개선해 나갑니다.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서울, 우리동네를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서울



우리 마을의 공간복지 실현

<p>일관성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조정</p> <p>우리동네 풍경을 더 좋게 만들다</p>	<p>아름다운 우리동네를 위한 자산 발굴, 사업 제시</p> <p>우리동네의 미래 모습을 찾다</p>	<p>지속적인 주민상담 및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p> <p>언제든지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다</p>
--	--	---

마을건축가는 주민 중심의 현장 소통을 통해 우리 마을의 지역 공동체를 활기차게 만들며 미래를 함께 그리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조력자(Facilitator)입니다.

주민 소통,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



마을건축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합니다.

서울시 마을건축가와 함께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 갑니다.

